2024 문화예술 민간기업
참여 협력프로젝트

그리는 집 전시

Home is
Where I Paint
My Art

2024.9.14 –
2025.02.28

프로젝트 갤러리

정크하우스 & 스톰
Junkhouse & Storm

JunkHouse와 Storm의 최신 공동 전시인 “내 작품을 그리는 곳은 집이다"는 도시 환경 내에서 정체성, 장소, 그리고 예술적 표현의 교차점을 탐구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다인종 커플인 그들은 한국과 덴마크의 영향을 결합하여 다양한 문화를 탐험하며 도시 생활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리듬에 적응하는 공동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그들의 예술은 도시 풍경과 깊이 얽혀 있으며, 서울과 같은 도시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영감과 캔버스로 활용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그들은 도시가 그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창작 과정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합니다. 주변 환경—건축, 거리 생활, 도시 디자인의 미세한 차이점—에서 영향을 받아 JunkHouse와 Storm은 도시를 그들의 경험의 연장선으로 변화시킵니다.

"내 예술을 그리는 곳은 집이다"는 집의 개념을 정적이고 한정짓는 것을 도전합니다. 대신 이 부부는 가는 곳마다 소속감을 형성하는 방법을 드러내며, 각 새로운 도시는 그들의 독특한 예술적 비전으로 채워 나갑니다. 그들의 작업은 집의 유동성을 포착하며, 집이 벽이나 경계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장소에 가져오는 창의성과 연결로 정의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예술을 그리는 곳은 집이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JunkHouse와 Storm의 생동감 넘치는 우주에 감사해 보세요. 이 전시는 정체성과 장소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그들이 인식하는 집의 유동성을 경험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들의 예술적 시각을 통해 여정을 받아들이고, 도시의 모든 구석, 그들의 붓질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태피스트리의 일부가 되는 과정을 발견해 보세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당신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집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살아 숨쉬는 예술의 일부가 됩니다.

"Home is Where I Paint my Hat" (원제)라는 표현은 집의 개념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개인의 창의성과 정체성에 얽혀들어, 그안감을 강조합니다. "모자를 그리는 집"이라는 비유는 스타일이나 개성을 표현하는 행위를 나타내며, 자신이 느끼는 집의 의미는 개인의 예술적 비전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집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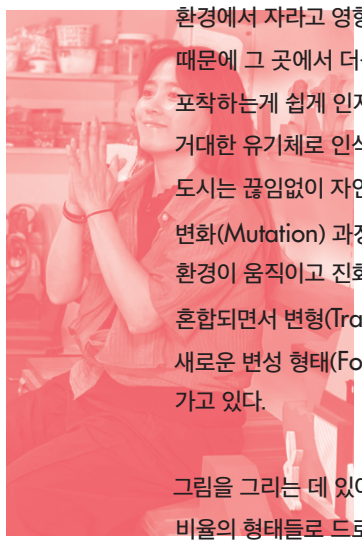
정크하우스 JunkHouse

도시와 도시를 이루고 있는 무기적인 것들에 영감을 받아 나만의 상상력을 통하여 또 다른 이미지로 만들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MonsterHouse”, “Mutants”, “CitylifeForm” 등의 도시에서 찾은 캐릭터들을 표현 하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형성해 나갔다. 또한 기하학적인 형태들과 색채들의 조합을 꾸준히 연구하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한 작업들을 스트릿 아트, 설치, 페인팅, 오브젝트, 공공미술등 다수의 프로젝트로 공간과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경계없는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상상의 이미지를 현실로 재현하고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크기와 재료를 막론하고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다.”

정크하우스 작업의 전체적인 컨셉은 유기체론(Organicism)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기적인 오브젝트들에서 찾아낸 이미지들이 작가의 상상력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하는 것이다. 그냥 손가는 데로 그리는 Doodling (낙서그림)들은 그간에 무의식 속에 담아 두었던 딱딱한 사물들, 집, 건물들, 이미지, 키워드들 등이 그의 무의식 속에서 상호작용하여 형이상학적인 형태로 새로운 살아있는 유기적인 이미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정크하우스는 이 그림들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공간을 부여한다. 그들은 하루도 채 못 가서 그곳에서 찢기거나 쫓겨날 수도 있고 때로는 생각보다 오래도록 그 곳에 존재 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자연적인 것들 보다는 이미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산업물, 건축물, 등등의 딱딱한 사물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콘크리트 냄새 나는 도시의 환경에서 자라고 영향을 받아왔다. 어쩌면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형체들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더욱 더 인간적이고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이미지들을 포착하는게 쉽게 인지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그는 도시를 또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인식한다.
도시는 끊임없이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그 모습을 탈바꿈하고 진화하는 변화(Mutation)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런 이유로 그가 영향을 받는 대상과 환경이 움직이고 진화하기 때문에 그의 이미지들은 또 다시 서로 섞이고 혼합되면서 변형(Transe-forme)되며 기하학적(Geometric) 형태를 거쳐 새로운 변성 형태(Formes metamorphoses)들로 재생성되고 증식되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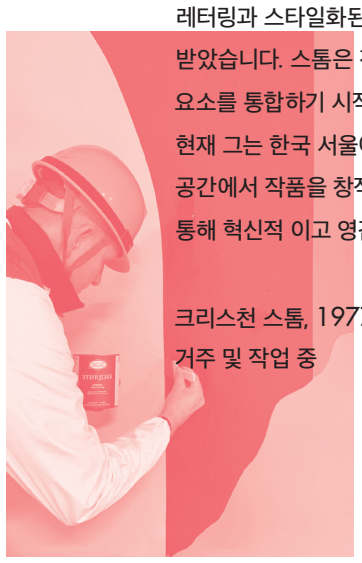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형태와 색채의 조화를 가장 중요시한다. 조화로운 비율의 형태들로 드로잉이 그려지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색채들을 통하여 전체 그림의 비율과 조화를 맞춘다. 형태들은 아름다운 색채를 입고 색채들은 형태를 갖추게 됨으로써 하나의 작품이 탄생한다.

정크하우스는 현실에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을 계속 탐구하고 형성해 그들만의 또 다른 현실세계 (Real world)를 그만의 무한한 상상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크리스천 스톰 Christian Storm

1992년부터 예술 활동을 해온 자가 학습 덴마크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코펜하겐 출신입니다. 브루탈리즘과 미니멀리즘과 같은 건축 양식에 대한 그의 매력이 예술가로서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작품은 굵고 색상감 있는 레터링과 스타일화된 이미지가 특징인 전통적 인 그래피티 스타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톰은 전통적인 그래피티를 넘어 그의 스타일을 발전시켜 건축적 요소를 통합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독특한 영향의 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그는 한국 서울에서 예술 작업을 계속하며, 전 세계의 갤러리와 공공 공간에서 작품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술가 및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 이고 영감을 주는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크리스천 스톰, 1977년 덴마크 프레데릭스베르그 출생 서울, 대한민국 거주 및 작업 중

주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 주관 gma 경기도미술관 | 협찬 SAMHWA 삼화페인트 Dunn-Edwards PAINTS 던에드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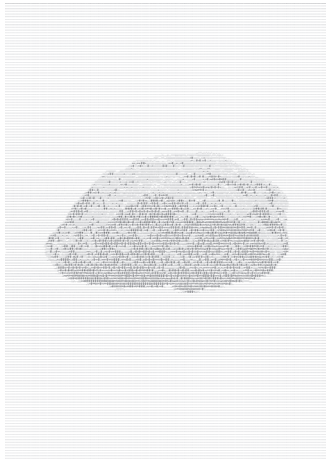
2024 문화예술 민간기업
참여 협력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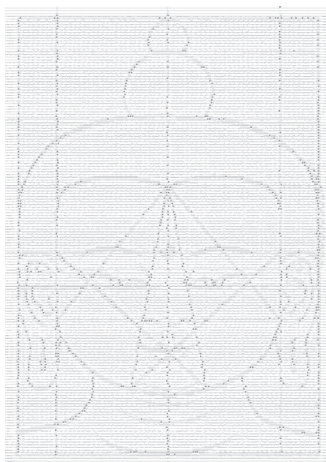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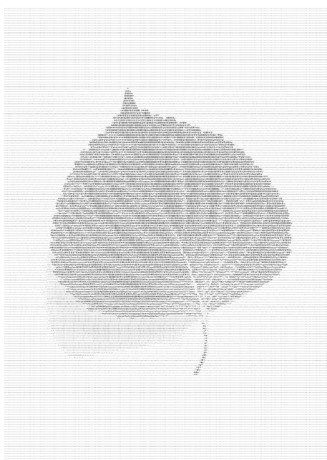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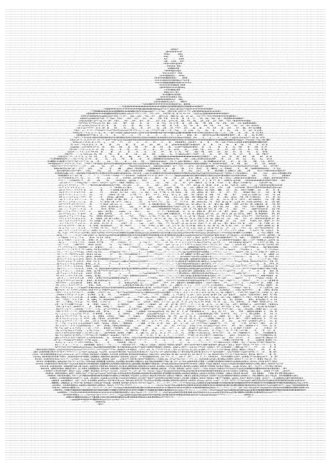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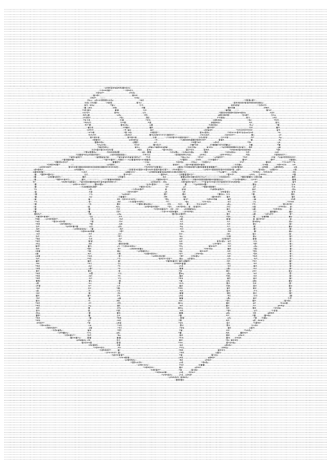
그리는 집 짓기

Home is
Where I Paint
My Art

2024.9.14 –
2025.02.28
프로젝트 갤러리

김월식
Kim Wolsik



뜬소문 Believe it or not

하나.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이동했다. 그 집은 신전이고 사무실이고 식당이고 모바일이었다. 집안과 밖으로는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되었다. 그 치장은 오랜 이동과 잦은 이동에도 품위와 권위를 잃지 않았다.

둘. 양지와 음지의 구분이 뚜렷한 어떤 지역의 겨울은 매우 추워서 더운 지역에서 이주해 온 노동자는 양지만으로 이어진 지도를 만들었다.

셋. 아이들은 햇빛을 찍어 먹었다.

넷. 노동 시민이 되기 위한 첫 절차는 언어를 배우는 일이었다. 언어를 배우는 일은 어떤 종교 부흥회의 모습처럼 모두 은혜를 받는 절차 같았다.

다섯. 이주한 사람들은 이주 전의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향수는 매우 동시대적이고 매우 세련된 정서이다.

여섯. 만약 당신이 깻잎이나 시금치를 먹는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땀방울을 먹는 것이다.

일곱. 사람들은 화장실이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다.

여덟. 동일 토템족에 속한 사람과 사람들은 같은 이름을 갖는다.

아홉. 이주민은 원주민에게 선물(경제적·법적·윤리적·도덕적)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원주민들은 선물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주어지는 선물은 결코 거절해서는 안 되므로 선물을 받을 의무도 있다.

아홉. 도래할 공동체는 서로 간의 '융합'이 아니라, 단수성들의 '상호노출'이다.

열.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의 사고가 과학의 전단계로 주술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술적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것보다 하등한 단계의 사고가 아닌 사물을 이해하는 다른 태도, 다른 방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사고는 범주화로 인해 추상적인 것에 반해 오히려 어떤 사람의 사고는 개별적인 사물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한다.

주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 주관 gma 경기도미술관 | 협찬 SAMHWA 삼화페인트 Dunn-Edwards PAINTS 던에드워드